

초대 제16회 이일청 서양화가 개인전

전주 기린미술관, 7월 1~30일 개최

전주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에서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일청 서양화가의 16번째 개인전을 초대한다.

그동안 이일청 작가의 그림 세계의 변화 과정은 1970년대에는 자연 사물을 위주로 현장감있는 조형을 추구하여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의 혼합형 그림을 그렸으며, 80년대에는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산동네, 항구 등 인간의 삶이 숨쉬는 세계를 짙은 검정으로 윤곽을 처리하여 표현파적인 화풍을 구사했다.

1990년대에는 파스텔과 핏슈를 사용하여 풍경화와 꽃 등을 그려 화사한 조형 세계를 구사하였고, 2000년대에는 반구상의 형태 단순화와 자연의 근본 질서와 조화를 추구했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관찰, 통찰, 성찰의 세계를 기본적인 단순화된 선과 색으로 상징성이 짙은 표현을 추구하였으며, 묘사하는 자연 물체를 바탕으로 파랑색의 색채를 중심으로 밝아늘에 빛과 밤바다의 질서로운 조형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 작가의 이번 전시는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주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작가는 우주의 질서와 조화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작품



이일청 서양화가 작품

은 하늘의 푸르름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작가 특유의 터치와 색감 그리고 자유로운 표현으로 우주의 감성을 표출한다. 전체적인 화면은 이미지로 표현되는 집약된 형상으로 작용한다. 상징적인 이미지들은 들, 바람, 산, 새, 꽃들이다. 만물은 태어나고 시들어가며 생성과 소멸, 그리고 소멸 후 다시 생성하는 순환의 표현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번 작품전에는 오랜시간 키워왔던 명자나무를 가장 순수한 주홍의 색채로 표현하고 있다. 색과 색의 긴장성은 화면에

강렬한 색채미를 보여주고, 변화하는 색조는 항상 새롭게 질서와 조화를 선물한다.

작가는 자연의 질서와 조화 그리고 생성의 연속성으로 인식되는 화면의 역동성이 자연 본래의 모습으로 환치되는 공간 조형 나무와 꽃 하나로 파생되는 시간성과 그 결과적 화면의 본질을 찾기 위한 긴 여정 이미지로 표현되는 집약된 형상을 그렸다.

이 작가는 작가 노트에 '미묘한 감성으로 손끝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필획의 치열한 방향성은 화면에 흔적을 남긴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나의 작업 세계는 자연의 탐구에서 시작하여 내면의 추상적 단순화의 과정을 통해 형상을 표출하는 것이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인평 평론가는 '작가는 화가이기에 구도자였다. 자연속에서 하나의 푸르름으로 오롯이 안겨 생성의 순간순간 빛어지는 빛을 깊이 응시하면서 그 깨우침 안에서 나타난 아름다움, 곧 내면에서 여과된 빛깔을 화폭속에 응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일청 작가는 1950년 6.25 전쟁 통에 전주에서 태어나 원광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조형미술학과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했다. 그동안 개인전 15회와 국내·외 단체전에 다수 참여했다. 현재 전라 미술상 운영위원장과 예사람 문화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개최

7월 1일~8월 31일 찾아가는 미술관: 임실, '아주 사적인 표면들'展

전북도립미술관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임실문화원에서 소장품 기획전 2022 찾아가는 미술관: 임실, '아주 사적인 표면들'展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립미술관은 매년 소장품 중 일부를 엄선해 도내 시·군 문화공간을 찾아가 작품을 전시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립미술관 소장품은 도민 모두의 문화재이자 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개관 이래 수집해 온 소장품 중 약 58%를 차지하는 회화 작품은 현재 도립미술관의 소장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미술의 역사에서도 오랜 시간 주류를 담당해왔다.

'아주 사적인 표면들'展은 다양한 소장품 중, 고전적인 매체 분류법으로는 한국화 및 서양화에 속하는 동시대 회화 작품 등 11점을 선별해 소개한다.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의 질료와 작가의 필치로부터 비롯된 표면의 물질성'을 주제 삼아 작가의 그림을 그리는 행위와 그로부터 비롯된 회화성 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찾아가는 미술관'은 전북도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 도민의 공공 문화 자신인 미술관 소장품의 감상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미술 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임실군을 포함해 군산



시,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 정수군, 진안군 등 7개 시군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전시 관람료는 무료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장은성 기자

해외 마이스 행사 유치 홍보활동 재개

전북문화관광재단, 베트남서 열린 코리아 마이스 로드쇼 참가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2일과 24일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열린 2022 코리아 마이스 로드쇼에 참가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해외 마이스(MICE) 인센티브 단체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재개했다.

28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22일과 24일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열린 2022 코리아 마이스 로드쇼에 참가했다. 이번 로드쇼에는 152개의 베트남 현지 마이스 여행사 및 항공사 관계자 250여 명이 함께했다.

재단은 이번 로드쇼에서 현지 관계자 대상 1:1 비즈니스 미팅, 태권도 및 한복 체험 등 전북 특화 콘텐츠 활용 탐 빌딩 프로그램, 관광 및 숙박시설 안내,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 지원제도를 활용한 인센티브 행사 유치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2023 전북 아·태 마이스 대회 홍보를 통해 베트남 관광객 모객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로드쇼를 통해 재단은 전라북도 마이스 행사 집중 유치 대상인 동남아 권역의 네트워크 기반 구축과 더불어 마이스 목적지로서의 전라북도 인지도를 강화했다.

재단 관계자는 "국내의 마이스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 참가한 이번 로드쇼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후후 로드쇼에 참가한 베트남 현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캠퍼서 개최와 마이스 행사로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최초 전시지원 프로젝트 심귀옥 개인전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다음달 8일까지 전북예술회관 지하 1층 특별전시실에서 심귀옥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8일 재단에 따르면 도내 시각 분야 신진·경력단절 예술가의 예술계 진입을 위한 지원과 시각 분야 예술 활동의 기회 제공 및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최초 전시지원 프로젝트를 무료 대관으로 운영한다.

심귀옥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버려진 나무에 색을 입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 시킨 것처럼, 나의 작품을 보는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심귀옥 대표작 흔적

(063-230-741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실버마이크 전북권 6월 정규 공연 시작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22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전북권 'Jeolla 멋' 6월 공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실버마이크 전북권은 지난 5월 공연을 마치고 29일 오후 7시 익산 중앙체육공원과 부안(7월 2일 오후 4시, 물의거리), 남원(3일 오후 4시, 사랑의 광장)에서 6월 정규 공연을 진행한다. 각 공연마다 5팀의 악기 연주, 노래, 미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실버 세대가 주체적으로 공연 기회를 마련, 국민의 문화권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실버마이크 전북권에서는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주간예 전라북도 20개 장소에서 총 100회의 공연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4)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